

생명을 되찾게 하는 3%의 소금 모으기 운동



이 병 희

어린시절, 산너머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며 바라보던 새파랗고 선명한 하늘이 요즘 더욱 그리워진다. 영국 런던이 아닌 데도 집이나 산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이젠 온통 뿌연 스모그로 덮여 있어, 어린 시절로 되돌아 가고픈 충동을 일으킨다.

그렇다. 어린시절의 부푼 꿈을 안고 바라보던 멋진 하늘은 이제 런던형 스모그의 하늘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다.

인간이 이룩한 산업화와 과학문명의 발달은 400만년 동안 유지해온 환경공존을 단 200년 만에 위기상황으로 몰고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으로 피폐된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급격한 경제개발의 결과 남의 나라일로만 여긴 체 알고도 모른 채, 아니 알고고도 하지 않았던 환경과피의 문제가 심각하게 닥쳐오고 말았다.

전쟁이후 수출 위주로 진행된 경제개발은 본래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를 단 몇 십년만에 공업국가로 전환시켰다. 공해산업, 비공해산업을 가릴 것 없이 받아들였으며, 이제 우리 국민은 배고픔의 단계를 극복하자 음식을 낭비하고 1인당 쓰레기 배출량 1위에 이르는 부끄러운 국민이 되었다.

농촌과 도시의 균등한 발전이 아니라 가시적인 도시 부흥의 경제개발로 인해 농업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가지 혜택과 임금 등에 현혹되어 농촌의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농현상은 또 도시빈민을 야기시켰다. 드디어 수도권 인구가 1700~1800만을 넘게 되었는데, 남한 인구가 4천만이라 할 때 전 인구의 거의 1/2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쓰는 석탄, 석유로 인해 공기는 오염되고, 정신없이 다니는 몇백만대의 자동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주택과 건물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와 분진,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햇빛을 받아 광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여러가지 현상들로 인해 우리의 서울은 런던스모그와 광화학 스모그 현상이 공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밤과 낮 가릴 것 없이 스모그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고로 새파랗고 선명한 하늘은 더이상 볼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서울도 「런던스모그 참사사건」과 같은 참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화는 소비성과 낭비를 부추겨 쓰레기 전쟁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술로 인한 TV광고는 안 입어도 될 옷을 입게 했고 안 버려도 될 옷을 버리게 했으며 백해무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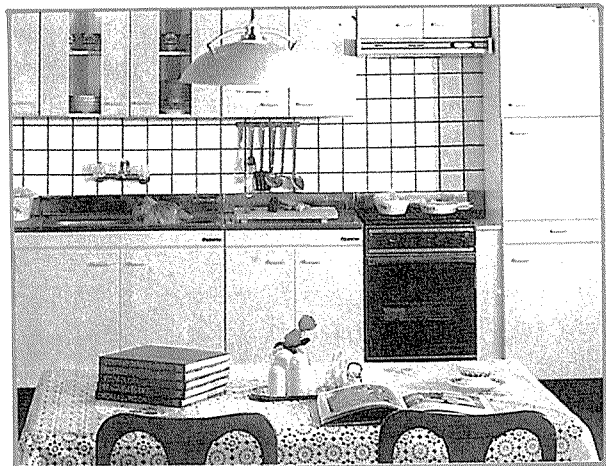
식품광고로 인해 건강을 잃게 하고 있다.

가공식품, 수입식품,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 아이들은 몸속에 암의 인자를 키워가고 있다. 아직도 쓸 수 있는 가전제품, 가구는 신상품에 쫓겨나 쓰레기 신세가 되는 것이다.

농경지를 개간하고 삼림을 파헤치며 들어선 공장과 주택들로 수질오염 역시 심각해졌다. 이젠 한모금의 수도물도 그냥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1회용품과 비닐, 스티로폴 등 타지 않는 물건의 사용으로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쓰레기 강산을 만들었고 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땅은 산성화되고 그 땅에서 나온 소출을 먹는 사람도 병을 앓고 있다.

쇠붙이도 삭히는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금속과 농약으로 찌든 음식을 먹는 우리의 몸은 전신마비나 보행불능이 초래되는가 하면 요즈음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아직도 쓸 수 있는
가전제품, 가구들이
신상품에 쫓겨나 쓰레기
신세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온 피조물이 공해 속에서 신음하는 세상이 되었다. 더우기 핵의 위협은 우리에게 공포가 되고 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석유는 앞으로 50년, 석탄은 200년을 더 쓸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쓴 화석연료로 인한 일산화탄소 배출은 일산화탄소의 막을 두텁게 형성하여 지구의 기온상승과 온실효과를 가져왔고 CFC(염화불화탄소)의 화학물질 개발은 오존층을 파괴해 왔다.

지금까지 뿌려진 CFC로 인한 프레온가스의 배출량 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오존홀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하며 1주일 만에 남한만한 크기의 오존홀이 생기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들어 피부암, 백내장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모두 이런 까닭이다. 이 오염된 대기는 산성비와 눈으로 내려져 생물을 죽게 만든다.

또한 지구의 허파구실을 하는 브라질 아

마존강 유역은 다국적 기업들의 황포로 1년에 남한만한 면적이 개간되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은 농경이 안되는 땅이라 결국은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골프장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토질은 잔디가 자라지 못하는 토질이라고 한다. 이 말은 곧 골프장 건설로 파괴된 삼림이 그대로 사막화되어 간다는 말이다. 이런 땅에다가 잔디를 유지시키려면 맹독성 농약(농경지의 5~6배)을 치지 않으면 안된다. 60여곳이 넘는 골프장과 400만이 넘는 골프인원이 남한 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한쪽에선 자신들의 레저를 위해 땅, 자연을 파괴하고 한쪽에선 땅을 살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아이러니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을 지키지 않을 때의 자연의 보복을 우리는 고대 문명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이집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스라엘, 중국 황하유역등 고대 문명들은 환경을 보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를 만든다든가
우유팩을 모아 재활용
휴지공장에 보내는 등의
일은 아주 소중한 실천의
시작이다.



“언 재료가 흙, 자연인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배워야 한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 속에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3%만이라도 환경운동을 시작한다면
 파괴된 지구를 생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존하지 않은 탓에 사막화되고 말았다. 이대로 간다면 금세기 말에는 인구의 22%는 사막에서 살아야 하며,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대로 자연의 보복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원재료가 흙, 자연인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배워야 한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 속에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류의 3%만이라도 환경운동을 시작한다면 파괴된 지구를,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은 국가만의 일이 아니다. 물론 국가는 국가대로 환경의 보존과 회생을 위한 역할을 다 해야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환경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를 만든다든지, 우유팩을 모아 재활용 휴지공장에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실천의 시작이다.

또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것, 분리수거

를 철저히 하고, 자가용 운전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에서부터 내 고장의 대기오염·수질오염에 대해 감시하고 관리 당국에 환경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와 압력 단체로 역할 하는 것 등, 조금만 노력하면 생활환경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100여개가 넘는 환경운동 단체가 있다한다. 바로 작은 생활환경운동의 힘들이 모여 이루어진 생명을 살리는 3%의 소금과 같은 의인들인 것이다.

나의 작은 실천이 나,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벅차고 행복한 일인가.

1993년 새해에는 이웃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운동에 대해 고민도 나누고, 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자. 

〈필자=여성민우회 도봉·노원지회 운영위원〉

